中, 권력층 사상 최대 10만명 물갈이

40-50-60년대 출생자들이 '3대 주축' 이뤄

후진타오 주석 권력기반 '공청단' 출신 약진

올 가을 개막하는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7대)를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지방정부 고위간부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되고 있다.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22일 현재 전국 각 성과 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도간부 교체작업으로 모두 10만여명의 지도간부들이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지도간부 교체작업으로 10만명 이상의 관원들이 새로운 자리로 배치되거나 공직에서 추방될 것이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제도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도간부 교체작업이 기구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간부제도 개혁의 새로운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전국 14개 성에서 성과 시, 현, 향 단위 당위원들을 교체했으며 현재 17개 성에서 교체작업이 진행돼 올 상반기에 지도간부 교체가 모두 완료된다.

현재까지 개편된 지방정부 당.정 지도부 구성을 보면 부서기와 부성장 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지도부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연경화(年輕化)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중앙 지도부가 성급 당위원회 지도부에 50세 이하를 3명, 45세 전후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진시키도록 함에 따라 40년대와 50년대, 60년대 출생자들이 3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1963년생인 후춘화(胡春華)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와 역시 1963년생인 쑨정차이(孫政才) 농업부장, 1960년생인 저우창(周强) 후난(湖南)성 대리성장 등 40대 초중반 '젊은이' 3명이 성장급 또는 부장급 고위직에 발탁됐다.

또 지금까지 당서기 밑에 여러 명의 부서기를 둔 것과는 달리 당서기 1명과 부서기 2명만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대폭 간소화한 '일정양부(一正兩副)' 제도도 완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권력기반인 공청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대학 교수는 "이번 인사 교체는 간단하게 간부의 수가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체제개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연합뉴스

"北 핵 프로그램 신빙성에 의문"

핵 전문가 지적 잇따라…힐 "북 HEU 철저히 추궁할 것"

북한에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장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초기이행 조치 60일 사이에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21일 전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있다는 주장을 이라크에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 전쟁에 이르게 했던 미국 정보의 대실패에 비유하면서 미국이 이들의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2001년부터 원심분리기 관련 장비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2005년까지 매년 2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고 지난 2002년에 주장한 바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비밀 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북한이 핵시설을 건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또 하나의 증거부족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확산연구센터의 핑크스톤 연구원도 "그들(북한)이 서너 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몇 가지 연구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량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는 것은 먼 장래의 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또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북한이 핵폭탄의 대체원료로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북한이 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伊 프로디 내각 총사퇴

로마노 프로디 총리 내각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동의안이 21일 이탈리아 상원 표결에서 부결된 것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이탈리아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상원 표결 패배 직후 프로디 총리는 프란체스코 루텔리 부총리와 달레마 외교장관, 아르투로 파리시 국방장관과 회동을 가진데 이어, 나폴리타노 대통령을 만나 내각 총사퇴안을 전달했으며,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정당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새로운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며, 상·하원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프간 파병 연장안 부결 책임

의회 해산·조기총선 가능성도

이날 볼로냐 지역을 방문 중이던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일정을 중단하고 곧 바로 수도인 로마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프로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좌파연합은 정부의 외교정책 지지 및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유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상원의 표결에서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인 160표에 2표 모자라는 158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 동의안에 대한 찬성은 158표, 반대는 136표였으나, 상원에서는 '반대'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기권표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프로디 정부의 패배를 초래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은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21일(현지시각) 열린 중동평화 4자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끝났다. 회담을 마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부터) 등 4자회담 대표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평화 4자회담 합의 도출 실패

차기회담 아랍국서 개최키로

독일 베를린에서 21일 열린 중동평화 4자회담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끝났다.

4자회담 대표들이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은 어떠한 팔레스타인 정부도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요구를 천명하는 데 그치고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하마스와 파타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성명은 중동평화 4자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다음 회의를 아랍 국가 중 한 곳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 초청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자회담 대표와 초청국인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그리고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EU 대외문제 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아직 팔레스타인 연합정부를 승인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의 중동 순방에 이어 열린 이번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은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및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하마스와 파타당이 지난 8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열린 이번 회담에서 연합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 유럽과 미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연합뉴스

네그로폰테, 내달 韓·中·日 방문

〈美 국무부 부장관〉

취임후 첫 亞 방문…北은 안갈듯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다음달 1~6일 취임후 첫 해외순방에 나서 일본과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가 21일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3월 1일부터 6일까지 도쿄와 베이징, 서울을 잇따라 방문, 북한 핵문제 등 당면 현안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동북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찾아 이들 '핵심 3개국' 당국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가별 양자 문제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와 같은 다자간 의제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특히 앞으로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로버트 졸릭 전 부장관이 맡았던 업무를 이어받아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방북설과 관련, 케이시 부대변인은 그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이번 순방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겠지만 특별히 6자회담만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지금 미국선 옥수수 심은데 '金' 나올판

대체에너지 원료 각광 땅값 급등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농지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뉴욕 맨해튼, 런던과 같은 부자 동네 아파트값보다도 더 올랐다. 농지가격이 이들 부자 동네 아파트값보다 더 오른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농지가격 급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옥수수. 최근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에탄올 원료로 옥수수 인기가 치솟으면서 농지가격이 껑충 뛴 것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농지가격은 옥수수밭 가격 급등에 힘입어 15% 상승했다. 미국 최대의 옥수수 산지인 아이다호주의 농지가격은 35% 급등했으며 인디애나주도 16%나 올랐다. /시카고블룸버그=연합뉴스